

美 중간선거·CPI 발표 앞두고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우려

美 공화당 상·하원 승리 관심사
여전한 고물가에 충격 불가피

코스피 밴드 2260~2370 예상
전문가 “선반영돼 영향 제한적”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도 선방했던 국내 증시는 이번 주 미 중간선거의 결과와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발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0월 주식시장 상승 또한 연준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배경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1월은 미 중간선거의 결과로 인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코스피 밴드를 2260~2370포인트 내외로 예상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0.83% 오른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한 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19.26포인트(0.83%) 오른 2348.43을 나타내고 있다.

2348.4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3.53% 올랐으며 5거래일 동안 지난 3일 하루를 빼고 전부 상승 마감했다.

이같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8일(현지시간) 열리는 미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높아질 수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 “미 중간선거 최대 관심사는 현재 민주당이

쥐고 있는 미 의회 주도권이 공화당으로 넘어가는데 대한 여부”라며 “공화당이 양원을 모두 장악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향후 2년간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이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의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법인세 인상, 기후변화 대응 등의 정책은 동력 상실할 우려가 있는 데다 부채한도 협상 시 의회가 정부의 재정지출 감축을 요구하는 등의 예산 관련 불확실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오는 10일(현지시간)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보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면 산타랄리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일 수 있지만 오히려 예상치보다 높을 경우 시장에 충격을 미칠 수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0월 CPI(11월 10일) 결과에 따라 단기 흐름이 결정될 전망이다. 전년 대비로 8.1% 상

승한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어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임을 시사한다 “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이벤트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Fed가 빈틈없는 가이드를 제시했고 시장도 이를 서둘러 반영한 까닭에 물가지표와 선거결과가 가지는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 미·중 모두 중차대한 정치 이벤트를 소화하는 국면인 만큼 이후 상호 견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는 주목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장기 흐름에서 수혜가 가능한 종목 탐색은 유효하다”고 밝히며 최근 외국인이 선호하는 대형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원래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서울 아파트값, 10년 4개월째 최대 낙폭

추가 금리인상 우려 23주 연속 하락
서울 매매가 전주 대비 0.34% ↓
노원 상계주공9, 1억6900만원 내리

서울 아파트값이 추가 금리 인상 우려로 2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며 10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4% 하락했다. 하락폭은 전주(-0.28%)보다 0.06%포인트 확대됐다.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하락(-0.01%)한 뒤 23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낙폭은 지난 2012년 6월 11일(-0.36%)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크다.

동북권에서는 노원구(-0.36%→-0.43%)가 월계·상계·중계동 대단지, 도봉구(-0.40%→-0.42%)는 창·도봉동 구축, 성북구(-0.38%→-0.44%)는 길음·하월곡·문암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커졌다.

서북권에서는 은평구(-0.35%→-0.40%)가 수색·녹번·응암동, 서남권에서는 강서구(-0.31%→-0.35%)가 가양·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엘스'. /김대환 기자

등촌·방화동, 관악구(-0.24%→-0.33%)는 봉천·신림동 노후 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동남권에서는 송파구(-0.43%→-0.60%)가 잠실·가락·방이동, 강동구(-0.35%→-0.45%)는 암사·강이·명일동 위주로 하락폭이 커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9단지'는 지난달 전용면적 49㎡가 5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5월 거래가격(6억6900만원) 대비 1억6900만원 하락

했다. 성북구 길음동에 위치한 '길음뉴타운 4단지'는 지난 3월 전용면적 84㎡가 10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7개월 만에 거래가격(9억2000만원)이 1억3000만원 떨어졌다.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북한산 프리지오'의 경우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8억78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지난해 10월 최고가였던 13억6500만원에서 4억8700만원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하락 우려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과 추가 금리 인상 예정에 따라 매수 문의는 극소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급매물에서 추가적인 가격 하향이 발생해도 거래 성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부동산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금리가 급등하고 있어 매수자들이 집을 사기 어렵다”면서 “대출을 더 풀면 일부 거래는 될 수 있겠지만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11월 둘째 주 전국서 1.5만 가구 공급

분양 캘린더

논산아이파크 등 22개 단지
건본주택 6곳서 오픈 예정

11월 둘째 주에는 전국 22개 단지에서 총 1만5143가구(일반분양 1만193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3지구 A39블록 '호반써밋웨스트파크', 경기 평택시 현덕면 '포레나평택화양', 충남 아산시 용화동 '아산자이그랜드파크', 충남 논산시 대교동 '논산아이파크' 등에서 청약을 진행

한다.

건본주택은 경기 용인시 죽전동 'e편한세상죽전프리미어포레', 경기 양주시 회정동 '양주덕정역하라비발디퍼스티어', 대전 유성구 원신동 '갑천2트리폴시티엘리프', 경북 영주시 휴전동 '영주아이파크' 등 6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논산시 대교동 일원에 '논산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2층~지상24층, 7개동, 전용 84~158㎡, 총 453가구 규모다.

DL건설과 대림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원에서 'e편한세상죽전프리미어포레'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 조감도.

3층~지상 최고 20층, 6개동, 전용면적 84㎡, 총 430가구 규모다. 단지과 가까운 43번 국도 등을 이용해 ▲분당~수서간 고속도로로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의 접근이 수월하다.

/김대환 기자

R&D 성과 주목... 내년 점진적 수익개선

metro 관심종목

유한양행

폐암신약 '렉라자' 투자 포인트
임상 3상 마무리면 국내매출 증대

유한양행의 3분기 실적에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한 가운데 증권업계는 임상 결과 발표, 견고한 연구개발(R&D) 역량 등을 이유로 2023년부터 유한양행의 점진적인 수익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유한양행은 전 거래일 대비 1800원(3.04%) 하락한 5만74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달 초 6만원대를 웃돌던 유한양행의 주가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진한 실적에 따른 실망감이 주가에 반영된 모습이다. 지난 3분기 유한양행은 연결기준 매출액 4315억원, 영업손실 45억원을 기록했다.

오리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약품 사업부 외 모든 사업부에서 매출이 감소했고, 비용이 증가한 것이 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이라며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 개발 일정이 지연되면서 라이선스 수익이 감소했고, R&D 비용 증가도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약품 사업부만이 성장했으나, 생활건강 사업부가 부진했다”며 “프리미엄급의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이 경기 침체를 맞아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흡키파 살충제가 시즌 종료로 반품되는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주요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한화투자증권이 8만5000원으로 유한양행의 목표주가를 가장 높게 책정했다. 이어 IBK투자증권 8만원, 대신증권 7만8000원, 한국투자·하나증권 7만5000원, 미래에셋증권 7만4000원, KB증권 7만2000원, 하이투자증권 7만1000원, 키움증권 7만원, 유안타증권 6만9000원 등의 순이다. 모두

<유한양행 목표주가>

증권사	목표주가
한화투자증권	8만5000원
IBK투자증권	8만원
대신증권	7만8000원
한국투자·하나증권	7만5000원
미래에셋증권	7만4000원

/각사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유한양행이 개발 중인 폐암 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를 투자 포인트로 꼽았다. 임상 3상(임상명 LASER301)이 마무리될 경우 R&D 비용 감소, 국내 판매 매출 증대 등으로 인해 2023년부터 수익성 개선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오는 12월 3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유럽중앙학회(ESMO) 아시아 2022'에서 레이저티닙 폐암 1차 단독 3상 세부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된다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한양행은 이번 임상 결과에 따라 내년 1분기 국내 1차 치료제 확대 신청에 이어 4분기 적응증 확대 승인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태희 KB증권 연구원은 “(렉라자는) 올해 국내에서만 300억원 매출이 예상되며, 지난 10월 발표된 다국가 임상 3상 결과를 통해 1차 치료제로서의 가능성도 확인됐다”며 “내년 1분기 적응증 확대를 위한 허가 변경 신청을 통해 약 3000억원 규모의 1차 치료제 시장 진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선경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밖에도 글로벌 제약사인 베링거인겔하임, 길리어드로 라이선싱한 파이프라인의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유입 등 2023년에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모멘텀이 존재해 유한양행의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박미경기자 mikyung96@